

청소업체 이사철 'ହି포'

계약 어기고 청소는 대충...을 광주·전남 피해 31건

오는 4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박모(여·33)씨는 지난 4일 신혼집인 광주시 남구 봉선동 M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청소업체에 청소를 위해 한 청소업체에 청소대행서비스를 의뢰했다.

박씨는 '요금을 선납하면 할인을 해주겠다'는 업체 측의 이야기를 듣고 19만8천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청소서비스를 받기로 한 전날 밤 전화로 '청소 날을 이틀 미루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고, 업체직원은 이사 당일에도 연락 한 번 없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화가 난 박씨는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콜센터와 고객센터, 광주지사 등으로 책임을 돌리면서 현재까지도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 심지어 유익하게 통화가 되는 콜센터 직원은 박씨에게 "당신이 몇 번 항의전화를 했는지 다 체크가 되니까 앞으로는 전화하지 말라"며 짜증을 내기까지 했다.

김모(35)씨는 지난달 20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P아파트 입주를 위해 한

업체에 청소를 맡기고 다음날 청소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업체직원이 욕실의 수도꼭지를 잡고 가지 않아 아파트 전체가 침수가 된 것이다.

물은 아래층까지 흘러내려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업체직원은 "배수구가 막혀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보상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도리어 화를 냈다. 김씨는 결국 법률자문을 받은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담 가운데 가장 자주 발생하는 피해유형은 청소 당일 연락도 없이 오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과

청소를 대충하고 가버리는 '서비스 불만족'이다.

이런 유사한 피해가 급증하자 한국 소비자원은 지난달 말 홈페이지에 소비자피해유형을 게시하고 부실 청소대행 서비스업체 4군데에 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상호만 다를 뿐 실제로는 동일 업체로 청소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청소 당일 연락 없이 오지 않거나 제대로 청소되지 않는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230여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다.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김미희 부장은 "청소대행 서비스업체의 '부실한 서비스'로 인한 고객의 피해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실제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힘들어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청소대행 서비스업체를 이용하는 때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서비스 내역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서를 확보해 둘 것"을 당부했다. /연협뉴스 ahj@kwangju.co.kr



이 슬픔 어이할꼬...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호성씨에게 살해돼 세상을 등진 서울 마포구 김모씨와 딸 등 일가족 영결식이 13일 서울 삼성동 서울의료원에서 열렸다. 일가족의 영정이 친지의 손에 들려 장례식장을 떠나자 유족과 딸들의 친구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살 네 모녀' 영결식 통곡... 오열...

13일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호성(41)씨에게 살해된 김모(45·여)씨 등 모녀 4명의 영결식이 치러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은 유족과 딸 친구들의 통곡과 오열로 눈물바다를 이뤘다.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병원 장례식장 301호에서 시작된 발인에는 김씨 친·외가 유족 20여명이 네 모녀 영정 앞에 앉아 차례로 절을 올리거나 기도를 하며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먼 길을 떠나는 영혼들을 애도했다.

김씨 언니는 영정 앞에서 절을 하다 슬픔을 가누지 못한 듯 주저앉은 채 "나 좀 울게요. 마음껏 울지도 못하고 나 죽겠네"라며 통곡하기 시작했고 김모씨와 딸 친구들의 통곡과 오열로 눈물바다를 이뤘다.

슬픔이 폭발해 오르는 듯 김씨 언니는 통곡을 멈추지 못하다 부축을 받고서 쓰러지듯 빈소 밖으로 끌려나왔고 이어 발인을 하던 첫째 딸 학교 친구 20여명도 억울하게 떠나보내는 친구의 사진 앞에서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러한 김씨 가족의 영정을 들고 빈소를 나서자 주변에 있던 유족과 친구 100여명은 힘겹게 영정 뒤를 뒤따라가며 비극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곳곳에서 울음소리를 토해냈다. 김씨 언니는 와인색 계열의 천이 덮인 동생과 조카들의 관이 한걸음씩 애틋한소리로 이동하자 "아이고 내 새끼들 어떡해. 어떡해"라며 관을 붙잡으려다 울음이 살에 걸린 듯 거친 신음소리를 내며 힘겨워했다.

네 모녀의 시신은 이날 오후 인천 부평 화장장에서 화장됐다. /연합뉴스

나원침 (7457) 김장두



다중주택·상업주택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저렴 및 상당량**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광역시 : 061) 337-0571

강종만 영광군수 징역형...군수직 상실

강종만 영광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영광군수 보궐선거는 오는 6월 4일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치러진다. 영광군 선관위는 오는 23일부터 군수 예비후보자 등록을, 오는 5월 20일부터는 후보자 등록을 접수받는다.

대법원1부는 13일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6년 7월 취임한 강 군수는 같은 해 12월16일 영광읍 자택에서 고교후배 지모씨 등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설비공사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지씨에게 자신에게 컸던 10만원권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해 22일과 24일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박재순씨 항소심 벌금 90만원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한나라당 전남도당 위원장 박재순(64)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피선거권 제한에서 벗어났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한주)는 13일 대선 후보와 문화예술인들의 간담회를 열어 제3자에게 기부행위를 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젠틀맨비노기타

www.gentlemanbino.com

전립선 비대증-KTP 레이저
신장·요관결석-충격파 쇄석기
남성수술클리닉, 여성 요실금 수술

원양 (062) 233-5119

수원 암매장 여아 안양 실종 어린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야산에서 암매장된 채 목숨이 끊긴 여아는 지난 12월 25일 안양에서 실종된 이혜진(10·초등4년)으로 확인됐다.

경기경찰청 수사본부와 수원서부경찰서는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DNA대조 결과 암매장 여아와 이양이 동일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피살된 이양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5시에 우에슬(8·초등2년)양과 함께 안양8동 안양문화회관 인근 상가주인에게 목격된 이후 행방불명됐으며 이들의 부모는 26일 오전 0시20분경 경찰에 미귀가신고했다.

이양의 시신은 11일 오후 4시45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호매실나들목 인근 야산에서 향토방위훈련중인 예비군에 의해 발견됐으며 발굴결과 시신은 10토막으로 잘린 처참한 모습이었다. /연합뉴스

화상경마장 사업 경위 등 뒷얘기 무성

공범 여부 의혹 재개도

서울 마포구 네 모녀 피살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이호성씨가 자살한 뒤에도 이씨를 둘러싼 뒷얘기가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우선 이씨를 나락으로 빠뜨린 결정적 계기인 화상경마장 사업 착수 경위를 둘러싼 뒷얘기가 대표적이다. 이씨가 당시 '농림부 허가를 내주겠다'는 이 지역 출신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만 믿고 무리하게 사업에 뛰어 들었다가 농림부의 허가 지연과 시민단체 반발에 부딪혀 결국 100억원대의 부도를 내고 추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사업실패로 자금 압박을 받던 이씨가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과 관련해 서도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씨는 공인중개사 박모(47)씨 등과 함께 충남 연기군 등 신행정수도 관련 부

동산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한 뒤 부를 가로챘다가 2005년 구속됐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박씨는 "이씨가 내게 혐의를 뒤집어씌운 뒤 '먼저 밖으로 나가면 형량을 낮추도록 손을 쓰겠다'고 말해놓고는 배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숨지기 전 함께 있었던 차모 여인은 이날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씨가 헤어지기 전 마포네 모녀 실종사건을 언급하며 '(내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다.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차 여인은 이날 경찰조사에서도 "이씨는 (이번 사건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여놓고 자신에게 덮어씌운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범 유무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업자 실종' 참고인 조사

뚜렷한 단서 못찾아

서울 마포구 김모씨 일가족 피살사건의 유력용의자인 전 프로야구 선수 이호성씨의 동업자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서부경찰은 13일 참고인 두 명을 불러 실종된 조모(당시 36세)씨의 행적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뚜렷한 단서를 찾아내지 못하는 등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이날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A씨와 B씨를 불러 실종된 조씨의 행적에 대해 조사를 했으나 이씨가 관여했는지 여부와 실종 직후 만난 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A씨와 B씨는 이씨의 순천 실내경마장 사업 동업자이자, 실종된 조씨의 지인들이다.

경찰은 조씨의 행방과 이씨의 사건 개입 여부 등에 단서를 찾기 위해 당시 조사를 받았던 참고인 26명을 차례로 다시 불러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종형 기자 golee@

'커닝'하다 큰 코 다친 사시 응시생

성다발

○...사법시험 응시생이 컨닝용 '쪽지'를 몰래 훔쳐보다 걸려든 바람에 향후 5년간 사법시험은 물론 모든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는 처지로 전락.

○...법무부는 13일 지난달 치러진 제5회 1차 사법시험 응시생 A씨가 부정 행위를 하던 것을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5년간 A씨의 사법시험과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응시자격을 제한.

○...30대 '장수생'으로 알려진 A씨는 출제가 예상되는 내용들과 관련한 핵심 단어들을 깨알같이 적은 쪽지를 몰래 보러다 감독관에게 적발됐는데, A씨는 "부정 행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5년 동안 응시자격을 제한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

○...법무부 관계자는 "법조인을 선발하는 사법시험에서 '커닝페이퍼'를 쓴 사람이 나왔다는 보고를 받고는 사실 어이가 없었다"며 쓴웃음.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아동, 학생 가구 15년 A/S 도 다릅니다.

www.gentlemanbino.com

전립선 비대증-KTP 레이저
신장·요관결석-충격파 쇄석기
남성수술클리닉, 여성 요실금 수술

원양 (062) 233-5119

광주젠틀맨비노기타 대표번호 1588